

시진핑의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

막스 베버의 정치지배유형을 중심으로

정태일 충북대학교 · 쑤이페이 충북대학교

논문요약

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으로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아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정치지도자를 분석하였다. 시진핑 이전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정치적 성장에서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집권이후에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적 후계체제로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당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적법한 절차에 통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도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

주제어 : 막스 베버, 시진핑,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

I. 서론

중국은 2012년 11월에 제18차 중국 공산당 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習近平)을 주석으로 선출하여 제5세대 정치지도자시대를 출범시켰다.¹⁾ 시진핑 시대는 중국 건국이후부터 마오쩌둥(毛澤東)까지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투쟁과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통해 새로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부흥의 꿈(2)을 실현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로 인해 국가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던 중국은 20세기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영토적, 인구학적 자원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켜 국제사회에서 정치군사적, 경제적 지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 미국의 패권전략을 간섭하기에 이르렀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G2로 부상한 이후 시작된 정부로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 지, 특히 시진핑이 집권하는 향후 10년은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戰略機會期)’로 인식되고 있다(이동률 2011, 13-15).

-
- 1) 제5세대 정치지도자는 1980년대 경제개혁기에 정치적으로 성장하여 시진핑 정부의 통치 기반이 된 정치지도자들이다.
 - 2) 중국의 꿈은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의 길’의 전시관을 참관하던 2012년 11월 29일에 제기한 개념이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한 시진핑은 2013년 3월 17일에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의 연설에서 총 9회에 걸쳐 ‘중국의 꿈’을 언급했다. 그에 의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은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꿈’의 핵심 목표는 2개의 100년 계획으로 압축된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 및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부강한 민주적인 문명의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은 이전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이 제기한 2021년의 소강사회(小康社會)와 2049년의 대동사회(大同社會) 건설의 이념을 ‘중국의 꿈’이라는 집약하여 중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꿈’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강한 중국, 민주적인 중국, 문명의 중국, 조화로운 중국, 아름다운 중국, 단결의 중국, 행복한 중국, 통일된 중국, 평화의 중국, 세계에 공헌하는 중국 등이다.

그렇지만 시진핑 체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시진핑은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등을 통해 국내사회를 안정화시켜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불리는 ‘해상실크로드3)’의 구축, 일본과의 조어도(釣魚島)분쟁,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등과 같은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사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이 ‘후진타오(胡錦濤) 없는 후진타오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박병광 2013, 139-170; 김기수 2012, 8). 왜냐하면 시진핑 이전 중국의 권력승계과정을 보면, 후임자는 상당기간 전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관례가 있었고, 여기에 후진타오 시대부터 누적된 대내외적인 문제점과 제4세대 정치지도부에서 구상한 핵심정책들을 그대로 인계받았기 때문에 시진핑도 예외없이 후진타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시진핑은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리더십으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비록 시진핑이 중국의 대내외적 정책방향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전의 중국 정치지도자와는 상이한 정치리더십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박창희 2013, 58). 이는 시진핑의 정치리더십이 중국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개성, 가치관, 지배형태, 정치방향, 정치신념, 정치의지 등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정책결정과 정책수행 등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 정치지도자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

3)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와 ‘해상실크로드’(海上絲綢之路)의 구축을 의미한다. 전자는 중국 서부지역과 중앙 및 서남아시아의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육상 경제벨트를, 후자는 중국동남부 해안을 통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포괄하는 해상네트워크를 지칭한다.

구에서는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지배유형을 검토한 후 제5세대 정치지도자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막스 베버의 정치지배유형의 이론적 검토

막스 베버에 있어 정치사회의 중심개념은 ‘지배’였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지배는 사회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 다양한 사회적 행위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영역에서조차 지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행위의 모든 영역은 예외 없이 지배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王迪 역 2010, 415)는 것이다. 이에 막스 베버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이성으로 복종시키는 근거로 정통성을 갖는 통치를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세 가지의 이념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막스 베버가 제시한 세 가지의 유형은 정통성을 갖는 지배형태의 모든 역사적 실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모든 역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정통적 지배는 3가지 유형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유형이 단독으로 역사에서 나타날 수는 없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를 ‘순수 이념형’이라고 하였다.

우선, 전통적 지배(Traditional Rule)이다. 전통적 지배에서 지배근거는 지배자 개인의 탁월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사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 가계나 신분, 그리고 혈통을 신성시하면서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원래 오랫동안 존속하여 내려온 것에 대해 그것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또는 무감각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지배는 바로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전통적 지배는 가부장적 세습군주제, 그리고 아직도 전통적 요인을 극복하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근대 사회에서 전통은 그 자체가 최고권위를 지니고 있어 피지배자뿐만 아니라 지배자까지도 구속하는 속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합법적 지배(Legal Rule)이다. 합법적 지배에서 지배근거는 ‘성문화된 합리적 규칙’에 근거한다. 지배자는 합리적 규칙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으며, 이 규칙을 준수하면서 권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지배형태는 ‘법의 지배원리’가 작동하는 근대국가에서 관료에 의한 지배가 이에 해당된다. 합법적 지배의 타당성은 다음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 임의의 법은 특정의 가치나 목적을 지향하여 약정 또는 흥정에 의하여 제정된다. 따라서 합법적 지배는 집단질서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집단 구성원이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둘째, 모든 법은 일정한 법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합리적 규칙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졌는가의 사실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합리적 법규 외에 특정 권력자에 의한 지시나 명령은 반드시 이미 제정된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 넷째, 복종자는 상하의 주종관계에 의거한 전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법지배의 한계 내에서 복종을 하게 된다. 다섯째, 법에 대한 복종은 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명령은 객관적 합법성을 지녀야만 복종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카리스마적 지배(Charismatic Rule)이다. 카리스마적 지배는 어떤 특정한 인물의 신비성, 비범성, 영웅적 능력, 초인적 인격 등에 대한 절대적 숭배가 이루어지는 지배유형이다. 카리스마(charisma)의 의미는 기적을 행하며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신이 부여한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카리스마적 존재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초인적 능력을 가진 인물을 말한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카리스마적 지배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피지배자의 자유로운 승인 여하에 달려 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사회적 격변기나 혼란기에 위대한 계시나 시대적 사명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영웅이나 탁월한 지도자에게 신뢰를 보내는 피지배자의 심리상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둘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유동적이다. 만일 지도자의 초인적 역량이 발휘되지 않거나 카리스마적 지배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될 때, 카리스마적 권위는 바로 추락하게 된다. 셋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특히,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한 지배장치로

동원된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을 갖춘 관료들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선택된 가신들이거나 충신들이다. 넷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현실적 감각이 배제된 초월적 관계에 서게 된다. 특히, 경제와는 대체로 무관하다. 카리스마적 지배는 어떤 사명이나 소명의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무시하며, 기부나 찬조가 아니라 약탈, 폭력, 공갈 등의 방법에 의해 그들의 욕구를 본능적으로 충족시킨다. 다섯째, 전통에 얽매인 사회에서 카리스마적 지배는 전통적 굴레와 사슬을 풀어버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카리스마적 지배는 독재정치를 불가피하게 한다. 이러한 사례는 근대 이후만 하더라도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등의 지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카리스마적 지배는 비합리적인 신성내지 초월성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전통적 지배나 합법적 지배처럼 영구적 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막스 베버의 정치지배유형은 순수이념형으로 현실국가에서 각각의 지배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거나 혼합되어 나타나며, 각각의 정치지배유형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치지배유형의 분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적 비판이 발생하기도 한다. 카리스마적 지배에서 복종은 통치에 대한 적응이지만 그렇다고 복종이 정당한 지배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합법적 지배도 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 하는 과정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다 같이 복종해야 하는 형식적인 법질서만을 강조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또한 합법적 지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요소와 결합하여 피지배자들이 민주적으로 구성된 의회가 제정한 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김용욱 2002, 101-1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 베버가 주장한 3가지 정치지배유형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순차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먼저 ‘카리스마적 지배’의 정통성은 카리스마를 숭배하는 피지배자들이 지배자에게 구현하는 사회의 이상을 믿고 그 지배자가 내리는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단 확립된 카리스마적 지배는 그 후계자들에게도 이전되어 카리스마적 지배의 ‘일상화’라는 연속성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합법적 지배’의 정통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통치과정의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어떤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법률의 최종적 근거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치가 정치이념으로 안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료제적 통치기술에 의존하는 국가의 합법성은 ‘합법적 지배’의 정통성 확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지닌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지배의 정통성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권한이 ‘정해진 절차’에 집착하여 ‘형식적 합법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임상우 1991, 214-218).

Ⅲ. 시진핑 이전 중국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

중국에서 정치세대에 대한 구분은 중국공산당 엘리트의 특이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사건을 중심으로 리칭(Li Cheng)은 제1세대 정치지도자에서 제5세대 정치지도자로 분류하였다(Li, Cheng and White Lynn 2003, 355-356). 제1세대 정치지도자는 1934년부터 1935년까지 대장정혁명을 주도했던 지도자들로 1949년부터 1976년까지의 마오쩌둥 시대를 말하며, 제2세대 정치지도자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전쟁을 주도했던 지도자들로 1978년부터 1992년까지의 덩샤오핑 시대를 말한다.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중국 건국 전후에 공산당에 입당하여 사회주의를 전이시킨 지도자들로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장쩌민 시대를 말하며, 제4세대 정치지도자는 문화대혁명시기에 청년시절을 보낸 1941년부터 1950년대 중반에 출생한 지도자로 후진타오 시대를 말한다. 제5세대 정치지도자는 1980년대 경제개혁기에 정치적으로 성장한 지도자들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진핑 시대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중국의 건국 이후 제1세대 정치지도자로서 제4세대 정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지배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제1세대 정치지도자인 마오쩌둥은 중국의 혁명기부터 건국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에 사회주의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이상주의적 지도자로서 인민들에게 이상화된 ‘위대한 영수’

이자 ‘국가지도자’였다(김소중 2001, 211-245). 마오쩌둥은 1949년부터 1976년에 사망하기까지 중국의 제1세대 정치지도자로서 그의 출생과 혁명시기의 사건들이 신격화되어 그의 어록은 중국 전역에서 학습되며, 많은 지역에 그의 동상이 건립되는 등 중국 인민들에게 신처럼 추앙되고 있다. 마오쩌둥은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에 참여하였고, 대장정 이후 중국공산당을 이끌며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을 거쳐 1949년 이후에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 오늘날의 중국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금까지도 마오쩌둥은 그의 정치사상과 정치리더십을 통해 중국 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마오쩌둥의 정치지배유형은 그에 대한 이상화와 신격화로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이 매우 강하지만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는 과정부터 공산주의 혁명가로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한 것에서 보듯이 전통적 지배성향도 지니고 있다. 또한 1949년 9월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마오쩌둥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마오쩌둥의 정치지배유형은 카리스마적 지배>전통적 지배>합법적 지배의 성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덩샤오핑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의 제2세대 정치지도자이자 최고 실권자로 군을 통제하는 등 자신의 정치권력을 강화하였다. 덩샤오핑은 1981년부터 1989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아 군권을 장악한 후 공산당 주석 화궈펑(華國鋒),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과 자오쯔양(趙紫陽)을 낙마시켰다. 문화대혁명의 희생자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후 붕괴된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복권 후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덩샤오핑이 1977년 7월에 제11기 3중 전회를 통해 복권됨으로써 실용주의적 덩샤오핑 체제가 사실상 재등장한 것이다. 1981년 6월에 제11기 6중 전회에서 화궈펑은 당 부주석으로 밀려나고 후야오방이 당 주석으로, 덩샤오핑은 당 군사위 주석에, 자오쯔양이 당 부주석을 겸임하도록 선출되면서 덩샤오핑 체제는 확립되었다(이창현 1987, 67-88). 덩샤오핑은 사망할 때까지 과거 적대적 관계였던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고 이들의 장

점을 대담하게 도입한 실용주의적 영도자였다(김창순 1997, 22-29). 덩샤오핑은 부강한 중국의 건설을 모색한 혁명가이자 개혁가로서 마오쩌둥과 같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덩샤오핑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이나 전통적인 지배성향도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덩샤오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카리스마적 지배 > 전통적 지배 > 합법적 지배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세대 정치지도자인 마오쩌둥과 제2세대 정치지도자인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하는데 있어 큰 공헌을 한 지도자로서 건국이후에도 사회주의 중국을 거의 50년간 통치했다. 그렇다 보니 두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전통적 지배성향이나 합법적 지배성향보다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장쩌민(江澤民)은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을 통치한 제3세대 정치지도자이다. 덩샤오핑은 자신의 후계자로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잇달아 내세웠지만 실패하였다. 특히, 덩샤오핑은 천안문사태 이후 혼란에 빠졌던 후계체제와 이에 과도기적 정권이 가지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런 와중에 장쩌민이 자신의 개혁노선을 성실하게 실천해 왔으며, 천안문사태 때 시위를 신속히 진압하는 등 통치능력을 보였다. 따라서 덩샤오핑은 장쩌민을 자신의 후계자로 판단하여 1989년 6월에 자오쯔양에 이어 당 총서기로 발탁하였다. 장쩌민은 중국의 제3세대 정치지도자로서 1989년 11월에 중국권력의 핵심인 당 군사위원회 주석에 올라 당권과 군권을 장악하였다(김기동 1999, 99). 장쩌민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덩샤오핑식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는 1970년대말 덩샤오핑 복권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중국 지도체제의 기본적 시스템이었다(鄧小平 1983, 287-292). 장쩌민은 집권 시기에 삼개대표(三個代表)⁴⁾이념을 추진하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쩌민은 다원화된 사회계층의 구조변화에 맞게

4) 삼개대표는 첫째, 당은 선진적인 사회생산력을 대표해야 하며, 둘째, 선진문화로의 진전 방향을 대표해야 하고, 셋째, 모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시키고, 일당지배의 지속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개혁개방정책과 경제발전을 유지하고자 하였다(고정오 2012, 73-97). 장쩌민의 정치지배유형은 덩샤오핑이 지정한 후계자로서 전통적 지배성향이 강하면서도 인민대표대회에서 당 주석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쩌민은 정치지도자로서 개인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장쩌민의 정치지배유형은 전통적 지배>합법적 지배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후진타오(胡錦濤)는 중국역사의 발전과정에서 하나의 전환점, 즉 도약기에 위치해 있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을 통치한 제4세대 정치지도자이다. 후진타오는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었는데, 그 당시 후진타오 체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장쩌민이 완전히 퇴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쩌민의 수렴청정이 가능한 지도부 교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렇지만 후진타오는 장쩌민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함에 따라 2005년 3월에 그 직을 승계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독자적인 후진타오 권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후진타오는 제17대 인민대표대회에서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제5세대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면서 후진타오의 독자적인 체제구축은 확고해졌다. 후진타오 시대는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분야에서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후진타오가 과도한 권력기반강화에 집착하지 않고, 실용노선을 통해 자신을 내세우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강조하였다. 특히, 후진타오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꾸준히 자기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의 개방개혁과 중국식 사회주의, 삼보주(三步走 전략)⁵⁾을 바탕으로 ‘화해사회론(和諧社會論)⁶⁾과 ‘과학발전관⁷⁾을 제창하였으며, 이인위본(以人爲本)⁸⁾과 화이부동(和而

5) 삼보주(三步走)는 ‘세 발자국을 걷다’라는 뜻으로 1979년 일본 수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와의 회견에서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국 현대화 발전전략이다. 제1보,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국민총생산액을 두 배로 증가시켜, 인민의 기본적인 의식(衣食)문제를 해결한다. 제2보, 1991년부터 20세기 말까지 국민총생산액을 두 배로 증가시켜 인민생활의 수준을 소강(小康)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제3보, 21세기 중엽까지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여 인민들이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며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한다. 이후, 이러한 기초 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不同)⁹⁾ 그리고 화평굴기(和平屈起)¹⁰⁾를 내용으로 하는 신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박광득 2007, 87-110). 후진타오의 정치지배유형은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주석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이 가장 강하지만 중국의 정해진 주석 승계절차에 따라 당선된 것은 전통적 지배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후진타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때, 후진타오의 정치지배유형은 전통적 지배>합법적 지배의 경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중국의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IV.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에 대한 분석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1중 전회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당선되었으며, 2013년 제1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당선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당·정·군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시진핑은 2023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 중국과 국제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시진핑

-
- 6) 화해사회론이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중국의 56개 민족 전체가 평등과 조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 7) 과학발전관은 지속가능한 발전관, 인본우위의 발전관, 균형발전관이 핵심내용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관은 인구자원, 환경과학기술사회 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본우위의 발전관은 인본은 기본적인 소질 제고와 지식 창조를 통해 변화된 사회의 경제적 요구에 합당하게 창조하는 것이다. 균형발전관은 산부문에 입각하여 경제 성장의 상관은 안정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동시에 직시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 8) 이인위본(以人爲本)은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 9)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어울리되 같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10) 화평굴기(和平屈起)는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외교노선으로 군사적 위협 없이 평화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데 활용된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출신(出身)으로는 태자당(太子黨)¹¹⁾이지만 지연(地緣)으로 상하이방(上海幫)¹²⁾, 학연(學緣)으로 칭화방(清華幫)¹³⁾, 경력(經歷)으로 공청단(共青團)의 관시망(關係網)¹⁴⁾이다. 즉, 시진핑은 대중연합적 성향인 칭화방-공청단-내륙지역 근무경험자들과의 제휴와 엘리트연합적 성향인 상하이방-태자당-연해지역 근무경험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시진핑의 정치적 기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성장기이다. 시진핑은 원적은 산시성(陝西省) 푸핑(富平)이지만 1953년 6월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및 국무원 부총리 등을 역임한 원로 혁명가 시중신(習中勳)의 아들이다. 시중신은 덩샤오핑 시대에 중국정치를 막후에서 조종하는 ‘8대 원로’에 이름이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아버지가 뉘양으로 하방(下放)¹⁵⁾될 때도 고위간부 자제들이 다니는 베이징 제81학교에 입학하여 1968년까지 다녔으며, 중학교는 베이징 제25중학교에 다녔다. 이때 시진핑은 문화대혁명으로 ‘반동집안의 자식’이라는 비판과 멸시를 받았다. 시진핑이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중국은 대학이 모두 문을 닫고 지식청년들은 농촌으로 추방되어 노동에 종사해야 했으며, 시진핑도 7년 동안 산시성(陝西省)의 오지인 량자허(梁家河)에서 노동에 종사했다. 1975년 22세 때 그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공

11) 중국정사에서 말하는 태자당이란 전직 고위 공산당 간부들의 자녀 및 그들과 혼인을 통해 맺어진 혈연 가운데 중국의 고위층 엘리트 반열에 진입한 자들을 의미한다(何顯高新 저, 김규영 역 1997, 136-147).

12) 상하이방이란 상하이라는 지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공식적 정치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상하이 경력을 정치성장의 발판으로 성장한 정치엘리트 집단을 ‘상하이방’이라 부르며, 반드시 상하이인만 원적이 아니라도 상하이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인물들을 지칭한다.

13) 중국정치체제에 있어서 출신대학별 엘리트의 정치인맥은 ‘칭화방’이라 칭한다.

14) 공청단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약칭으로 중국 지도부내의 대표적인 관시망이다. 공청단은 1922년 5월 광저우에서 ‘중국사회주의청년단’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사청단’ 혹은 ‘중앙위원회’로 개칭하였다. 중국 건국 이후에 중국신민주주의청년단으로 개칭했지만, 1957년 다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는 공산당 후비조직이다(丁勇 2005, 21-25).

15) 중국에서 하방은 중앙 및 상급기관의 권한과 인원을 지방과 하급기관에 내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원 하방은 주로 정치운동과 관련하여 나타나는데 문화대혁명 시기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농병(工農兵) 학생신분으로 칭화대학교에서 수학했는데, 그 당시 부친의 상사인 덩샤오핑이 부총리로 복권된 상황이었다.

1978년 덩샤오핑이 집권하자 그의 부친은 복권되었으며, 시진핑은 1979년 칭화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특혜를 받아 중앙군사위원회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였던 경묘오(耿飜)의 비서가 되어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辦公廳)에서 현역으로 근무했다. 1982년에 제대한 시진핑은 허베이성(河北省) 정딩현(正定縣) 부서기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지방을 돌며 기층을 경험하였다. 시진핑은 1985년 개방지역인 푸젠성(福建省) 샤먼(廈門)시로 옮겨 1988년까지 당위 상무위원 겸 부시장으로, 1988년 푸젠성(福建省) 닝더(寧德)지구 당위 서기에 임명되어 닝터지구의 심각한 부패퇴치를 주요시정목표로 삼아 척결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시진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90년 5월 시진핑은 푸젠성 푸저우(福州)시 서기로 승진되었다. 이후 시진핑은 2000년까지 푸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주임, 푸젠성 부서기·부성장·성장대리·성장 등으로 승진하였다. 2000년 푸젠성 성장에서 저장성(浙江省) 부서기로 옮겨 2002년에 저장성(浙江省) 당위 서기로 승진하였다. 시진핑은 2007년에 중국 제1의 도시인 상하이시의 서기가 되었으며, 2007년 11월에 제17차 당대회에서 당서열 제6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라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2008년 3월에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부주석에 올랐다. 2010년 10월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겸임함으로써 후진타오와 같은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되었다¹⁶⁾.

마침내 시진핑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당선되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후진타오로부터 승계받았다. 시진핑은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겸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당선되어 명실상부한 중국의 제5세대 정치지도자가 되었다(김정계 외 2013, 461-494).

다음으로 시진핑의 정치권력 구축과정이다.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후 중국정치는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시진핑의 개혁은 중국에서 하나의 변

16) <http://baike.baidu.com/item/%E4%B9%A0%E8%BF%91%E5%B9%B3/515617?fr=aladdin>
(검색일: 2017.7.25).

곡점을 지나가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중국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그 중심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이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더 이상 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만 했다(서상민 2015, 173). 시진핑은 집권 후 부패적결과정에서 권력행사나 중앙영도소조 등을 비롯한 당내 정치기구개편을 두고 ‘시진핑이 1980년대 이후 유지된 집단지도체제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시진핑은 중앙에서 저우용강(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귀보숭(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등을 ‘따라오후’¹⁷⁾로 무너뜨렸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공산당의 많은 부패문제를 척결되고, 정치적으로 집단 지도체제를 개편되자 시진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시진핑이 과거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카리스마적 1인 지배체제로 회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패적결과 당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시진핑 정부에서 선출된 정치국 위원은 18명인데 유임된 위원은 류옌둥(劉延東), 리위안차오(李源潮), 왕양(汪洋) 3명이며, 그 밖에 15명은 신임으로 연령적으로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의 제5세대 정치지도자들이었다. 시진핑의 지도부는 장쩌민 전 주석이 지지하는 장더장(張德江),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등의 ‘상하이방’과 위정성(俞正聲), 왕치산(王岐山) 등의 유력 정치인 2세인 ‘태자당’의 연합세력을 구축하여 리커창(李克強), 류옌둥, 리위안차오 등의 후진타오 세력의 ‘공청단’을 압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시진핑 정부가 지도층 인사의 제도화를 통해 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 위주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득권층의 양보와 배려가 아닌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시진핑의 정치적 성장과정과 정치적 집권세력 구축은 중국의 정치지도자교체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이를 토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그의 등장배경을 통해 보면, 전통적 지배성향이

17) 따라오후(打老虎)는 ‘삼반오반(三反五反)’운동에서 당과 정부기관, 기업산업 단위의 부패분자를 적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강하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및 국무원 부총리 등을 역임한 원로 혁명가 시중쉰(習中勳)의 아들이자 덩샤오핑으로부터 정치연계나 인맥을 받고 2013년 제1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당선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당·정·군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시진핑의 정치세력 구축을 위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출신으로 태자당, 지연으로 상하이방, 학연으로 칭화방, 경력으로 공천단의 관시망(关系网)이다. 중국에서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적 체제의 특성상 민주주의 국가처럼 권력교체가 곧 정책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진핑이 후진타오처럼 후계자의 수업을 받았다는 점에서 볼 때 그의 정치지배유형은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진핑은 집권 이후 부패척결과과정에서 권력행사나 중앙영도소조를 비롯한 당내 정치기구개편을 시도하였고, 정치적으로 “중국몽”을 제창하는 전략구상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 그리고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 ‘중등 선진국가로의 성장’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시진핑 정책은 시진핑 자신이 집권하는 10년을 통해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시진핑의 신 지도부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 집중하던 이전 기술관료 세대와는 달리 복잡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관리, 해결하고 민생안정을 주된 정책 과제로 인식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성향을 지닌 지도자들이다 (이동률 2013, 24). 즉,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부정부패의 척결과 “중국몽”의 발전계획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2012년 2월 국가 부주석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시진핑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강대국관계론’을 제시한 것에 알 수 있듯이 시진핑 체제는 G2국가로서 외교적 과제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시진핑이 제시한 “새로운 강대국관계론”은 미국 행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는 시진핑 체제의 핵심 키워드이다. 이것은 기존에 중국이 주장했던 ‘평화로운 발전론’이나 ‘조화로운 국가관계’보다 강대국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시진핑은 2013년 6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건설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 언

급한 바 있다. 시진핑이 언급한 4가지 원칙은, 첫째 현존하는 정부 간 대화와 소통채널의 활용, 둘째 새로운 협력채널의 수립, 셋째 국제적 사안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정책 고정, 넷째 새로운 형태의 군사관계 수립이다 (孫哲 2012).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은 예전과 달리 비교적 강경한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보면,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진핑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당선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후진타오로부터 승계한 후 2013년 3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겸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당선되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전통적 지배=카리스마적 지배>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이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정치지배유형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

V. 결론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하는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과정과는 달리 후진타오 집권 10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색깔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부상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여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시켜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초강대국을 지향함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안고 있다.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중국이 어떤 정치과정을 거쳐 다른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연관성을 지닌다. 시진핑 이전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지배유형은 민주주의국가의 보편적인 정치지배유형인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내지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이 대부분 이었다.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도 시진핑 이전의 중국 정치지도자와 커다란 차이는 없다. 대부분의 중국 정치지도자처럼 시진핑도 출신, 지연, 학연, 경력의 차원에서 보면 그의 정치적 기반은 다분히 전통적 지배성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진핑이 중국의 제5세대 정치지도자로서 당선되는 과정은 합법적인 지배성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정치지도자의 선출방법이기 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지닌 소수의 엘리트들로 한정된 제한되고 폐쇄적인 정치구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으로 보기에 한계가 많다. 한편 시진핑은 집권 이후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과정에서, 중앙영도소조를 비롯한 정치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에서 강한 정치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인다. 이렇듯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전통적, 합법적,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이 정치지도자로서의 성장과정과 등장과정, 정치지도자로서의 실천과정에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의 이러한 정치지배유형은 중국정치가 가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시진핑 이후 제6세대 정치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시진핑의 정치리더십은 강한 중국을 추구하는 시진핑 정책에 대하여 중국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결합되어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에 버금가는 시진핑 사상으로 당헌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진핑은 중국에서 덩샤오핑을 넘어 마오쩌둥의 위상을 지닌 정치지도자로 인식되어 그의 정치적 권위는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때,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내지 전통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강하게 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도 강한 정치리더십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대외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김창순. 1997. “등소평의 생애와 사상.” 『북한』 제304호. 22-29.
- 고정오. 2012. “중국 세대별 지도자들의 경제관 비교 연구: 마오쩌둥에서 후진타오까지.” 『중국지식네트워크』 제2권. 73-97.
- 김기동. 1990. “중국 제3세대 지도자 강택민.” 『북한』 1990년 4월호. 99.
- 김기수. 2012. 『시진핑 리더십』. 서울: 석탑출판.
- 김소중. 2001. “모택동과 등소평의 리더십과 지적 비교.” 『한국동북아논총』 제20집. 211-245.
- 김용욱. 2002. 『정치학: 이슈와 성찰』. 서울: 법문사.
- 김정계·전영란. 2013. “중국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성장과정과 정치사회적 배경.” 『동북아인문학』 제24집 제4호. 461-494.
- 박광득. 2007. “후진타오의 정책 변화와 그 전망.” 『대한정치학학보』 제14집 제3호. 87-110.
- 박병광. 2013.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0호. 139-170.
- 박창희. 2013.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과 한반도 안보.” 『전략논단』 제18권. 58.
- 서상민. 2015. “시진핑 시기 중앙영도소조의 연결망분석과 집단지도체제.” 『아세아연구』 제58권 제3호. 173.
- 이동률. 2011. “중국 비전 2020-초강대국화 전략의 과제.” 이동률 편.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13-15.
- _____. 2013.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36권 제4호. 24.
- 이창현. 1987. “등소평체제의 등장배경 및 과정과 개혁에 따른 자유·민주화의 갈등.”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제6권. 67-88.
- 임상우. 1991. 『베버의 지배유형론』. 서울: 일조각.
- 何频·高新 저. 김규영 역. 1997. 『포스트 등소평시대의 파워 엘리트』. 서울: 평민사.
- Li, Cheng and White Lynn. 2003. “The Sixteenth Central Committee of Chinese Communist Party: Hu Gets What?” Asian Survey 43-4(Jul/Aug).

355-356.

<http://baike.baidu.com/item/%E4%B9%A0%E8%BF%91%E5%B9%B3/515617?fr=aladdin>(검색일: 2017.7.25).

鄧小平. 1983. “黨和國家領導制度的改革.” 『鄧小平文選』. 香港: 三聯書店.

孫 哲. 2012. 『亞太戰略變局與中美新型大國關係』, 北京: 時事出版社.

王 迪. 2010. 『經濟與社會』, 上海: 三聯書店.

丁 望. 2005. 『胡錦濤與共青團接班群』. 香港: 當代名家出版社.

투고일: 2017년 8월 11일 · 심사일: 2017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1일

* 정태일은 충북대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고대서양정치사상연구』, 『중세서양정치사상연구』, 『평화사상연구』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칸트 영구평화론의 정치철학적 조명”, “20대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 쉰이페이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정치학 석사학위논문이 “새마을 운동이 한국정치발전에 미친 영향 분석”이고, 박사학위논문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정치변동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Xi Jinping:
Focusing on Max Weber's Political Domination Type

Chung, Tae-I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un, Yife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olitical system of Xi Jinping which was launched in 2013, faced many difficult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Xi Jinping must integrate and stabilize society through political reforms, such as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Resolved corruption. In addition, he should seek new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political leadership of Chinese political leaders including Xi Jinping using Max Weber 's political domination type. From the first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to the fourth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in China, the types of political domin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tend to be charismatic rather than legitimate domination. But the third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tend to have a tendency of traditional domination rather than legitimate domination, and the fourth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have a tendency to dominate more than traditional do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type of political domination of Xi Jinping shows traditional domination and legitimate domination tendency in the process of political growth and emergence, but shows tendency of charismatic domination after domination of political power.

Key words : Max Weber, Xi Jinping, Traditional Rule, Charismatic Rule, Legal Rule